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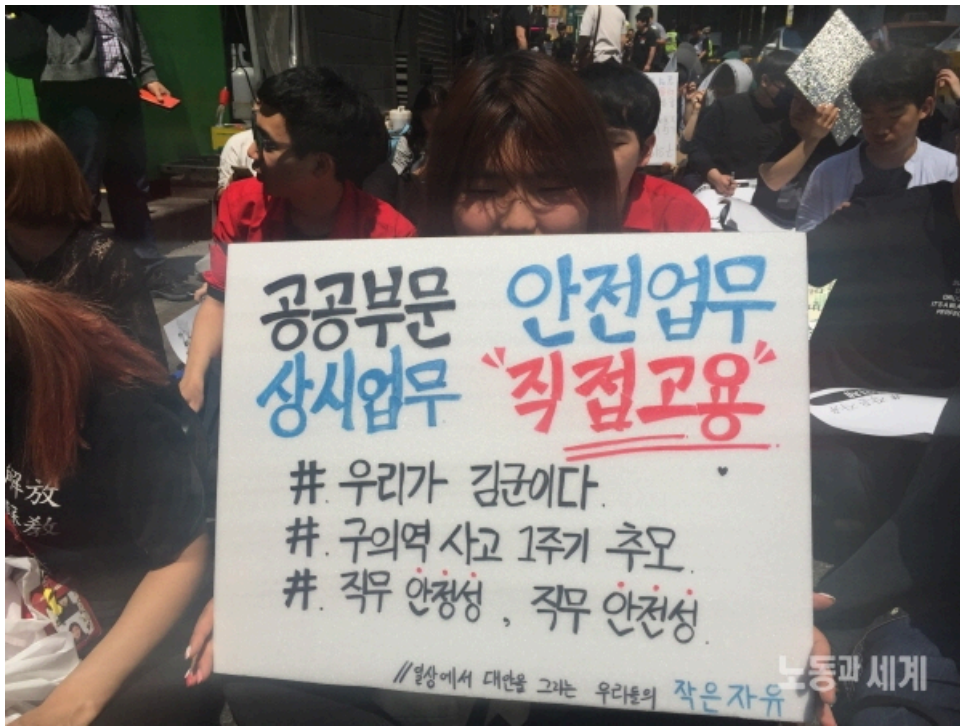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너를 기억해'

⌘ 노동과세계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 ⓒ 승인 2017.05.29 17:45

1년전 그날도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었을까요. 유달리 맑은 날씨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가라앉히는 듯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김군이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1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벌써부터 모여 앉은 김군 또래의 예비 노동자, 학생들은 저렇게 하늘처럼 맑고 젊었습니다.



지난 1년은 김군이 우리와, 우리 사회에 던져놓은 숙제를 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청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비용절감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는 쉽사리 그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2017년 5월 27일,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김군을 잊지 않고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해 구의역 1번출구 아래, 바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겠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김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 위해 무대에 오른 동료는 김군이 했던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하늘에 있을 친구에겐 빨리빨리 수리하라는 재촉도 다음달의 계약만료를 이유로 가차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없는 친구에게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군에게는 있을 리 없는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김군 동료의 편지의 행간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송이 국화에 담긴 선언 ‘너를 기억해’

추모제를 마치고 김군이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바로 그 자리로 헌화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한송이 한송이 놓여지는 국화는 오롯

이 하나 하나의 결의입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하나 하나의 요구입니다.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군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정시운행보다 생명안전이 중요하다
- 이윤추구와 효율을 위해 노동자를 분리하지 말라
- 일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안전하다
-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안전하다



멈추자! 외주화

바꾸자! 청년 비정규직 노동

만들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



노동과세계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